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꿈을 향해 힘차게” 비상 “난 스타가 되고 말거야”

<제2부> 문화 향기 현장속으로
 (12) 서울 예술아카데미 ‘해피 뮤지컬 스쿨’

■ ‘해피 뮤지컬 스쿨’ 참가하려면

열정 가진 청소년 누구나

오디션 통과해야... 2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지난해 10월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첫발을 댄 ‘해피 뮤지컬 스쿨’ 1기는 서울과 경기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였다.

(사)예술교육지원센터는 8월 중 모집예정인 ‘해피 뮤지컬 스쿨’ 2기는 전국으로 참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서류 전형 등을 통해 모두 200명을 선발했고 이중 120명이 교육 오디션 과정을 거쳤다. 3개월간 진행된 교육 오디션은 1주일에 한차례씩 음악·무용 교육을 받는 것으로, 많은 오디션이었지만 보다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 교육을 한 셈이었다.

교육 오디션의 경우 정규 교육 대상자와 달리 그룹을 나눠 분야별 지도교사가 각 지역을 방문, 강의를 진행한 게 특징이다.

오디션 교육중인 지난 12월에는 뮤지컬 제작자 설도운 씨를 비롯해, 남경주, 김선영 등 유명 뮤지컬 배우들이 참석한 후원회의 밤이 열린 8월에는 발표회도 가졌다.

정규 교육 과정 대상자는 오디션 결과와 일대일 면담을 통해 모두 200명을 선발했다. 능력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뮤지컬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에 무게 중심을 두고 대상자를 선발했다.

(사)예술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스터클래스를 운영하고 후원인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히고 “교육 오디션에서 열심히 연습했지만 정규 과정에서 탈락한 학생들을 도울 방법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문의 02-514-08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올 3월 열린 ‘해피 뮤지컬 스쿨’ 교육생 오디션 발표회 모습.

■ 문화 나눔 현장, 알려주세요

문화는 나눌수록 더욱 커집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객석 기부, 예술인들의 공연 기부, 기업체의 예술단체 지원 등 아름다운 문화나눔 현장을 찾아갑니다. 작은 목소리도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주변의 향기로운 문화나눔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일보사(062-220-0661, mekim@kwangju.co.kr)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062-381-2234)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SK텔레콤·공동모금회 지원 문화 자선학교 20여명 청소년 배우의 꿈 차곡차곡 키워



지난달 21일 서울 대학로 한 극단의 연습실에서 미래의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해피 뮤지컬 스쿨’ 1기생들이 무용 수업을 받고 있다.

“모두 나를 봐. 환호성이 들려. 난 스타가 되고 말거야. 언젠가 없어.”

주말이었던 지난달 21일. 수많은 공연장이 밀집해 있는 서울 대학로의 한 연습실에서 활기찬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국 예술계 고등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그린 뮤지컬 ‘페임’의 삽입곡을 부르며 연습에 열중인 청소년들은 미래의 ‘스타’와 관객의 ‘환호성’을 꿈꾸는 자신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 마냥 행복할 모습이었다.

이날 구슬땀을 흘리며 노래 연습을 하고 있는 이들은 ‘해피 뮤지컬 스쿨’ 1기생들. (사)예술교육지원센터(이사장 설도운)가 SK텔레콤과 사회복합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해피 뮤지컬 스쿨’은 열정은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춤, 노래, 연기 등 뮤지컬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문화자선학교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뽑힌 20명의 청소년들은 뮤지컬 배우의 꿈을 차곡차곡 키우기 위해 선생님들의 강의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멜로디 없이 박자에 맞게 가사만 읽는 연습을 하면 리듬감이 몸에 배 노래를 하는 데 훨씬 수월해. 노래를 부를 땐 목청껏, 충분히 즐기면서 하면 훨씬 좋겠다. 너희들이 방금 부른 ‘페임’의 가사처럼 당당히 자신감을 갖고.”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며 난 후 강의를 시작한 음악 강사 원미솔씨는 “너희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수업은 무용 과목. 발레의 기본 동작으로 몸을 풀고, 지도 교사가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 한사람 한사람 개별 동작을 체크 받았다. 쉬운 동작은 무난하게 넘어갔지만 아무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발레는 처음 접하다 보니 어떤 동작을 할 때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돼 연습실에서는 실 새 없이 웃음이 터져나왔다.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연습을 마친 음악 수업 후 이어진 연기 수업은 아이들이 조금 긴장하는 분위기였다. 지도 교사가 나눠준 5~6개의 독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대본을 보지 않고 곧바로 연기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너무나 멋진 ‘지킬 앤 하이드’를 보고 나서는 마음을 굳혔죠. 노래는 자신 있는데 춤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꿈을 노래한

‘페임’을 부를 땐 가슴이 마구 뛰던걸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1시간 남게 차를 타고 연습실을 찾은 고등학교 3학년 이진희(18)군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얼른 뮤지컬 수업을 받고 싶어부리니까 달려온다”고 말했다.

쉬는 시간에도 동료들과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던 김연선(수유중 2년)양은 “여기서 받는 교육을 통해 제 꿈에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는 것 같아 행복하다”며 “저도 어른이 되면 저처럼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4월 9일 입학식을 갖고 ‘해피 뮤지컬 스쿨’ 1기생이 된 20명의 청소년들은 일주일에 두 차례씩 집중적인 교육을 받는다. 화요일에는 무용과 음악 강사가 진행되며 6시간 연속 진행되는 토요일 강의에서는 무용·음악과 함께 연기도 배운다.

‘뮤지컬 스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진은 뮤지컬계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로 짜여져 있다. 교장은 뮤지컬 ‘맘마미아’, ‘멘트’, ‘아이 러브 유’ 등을 연출한 한진섭씨가 맡았으며 히트 창작 뮤지컬 ‘뮤직 인 마이 하트’의 작곡가이자 ‘지킬 앤 하이드’ 등의 음악감독을 맡았던 원미솔 씨가 음악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 무용 강의는 선근관대 무용과 출신으로 호주 댄스아카데미 등에서 수학한 관예진씨가, 연기 지도는 연출가 정태영씨와 이종기씨가 맡고 있다.

여기에 남경주·최정원씨 등도 특강 강사로 나설 예정이며 뮤지컬 ‘점프’의 제작사인 ‘예감’은 연습실을 무료로 내주는 등 ‘뮤지컬 스쿨’을 지원하는 이들이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무용 강의를 맡고 있는 관예진씨는 “제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하다”며 “정말 열심히 연습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연기, 춤, 노래 모두 기초를 탄탄히 하는데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뮤지컬 스쿨에 참여한 아이들은 TV를 통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접했을 뿐이지, 호흡이나 발성 등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잖아요. 자신들이 너무나 원했던 일이고,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만족도도 아주 높아요.”

(사)예술교육지원센터 김유진 대리는 “아이들이 뮤지컬 스쿨에 참여하면서 많이 밝아지고 즐거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2주간의 교육이 끝나면 아이들은 8월말 결과물을 발표하는 공연을 갖는다. 이 자리는 스무명의 예비 뮤지컬 스타들이 자신의 꿈을 확인하고, 더 큰 꿈을 향해 비상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서울=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후원:



대한민국대표 종합여행기업 - 롯데관광 LOTTOUR.com

2008 한국표준협회 선정 한국서비스대상 6년 연속 대상수상

방주무인출발 예약자 특전

Hot Sale 백여만 원 할인 ₩160,000

우안출발 2008 여름방학 특가 특선 무안출발로 더욱 편리한 중국여행

무안출발 전세기

중국 무안출발

일본 무안출발

북해도 특별전세기 인천출발

동남아 특별전세기 인천출발

호주/캐나다 인천출발

유럽 인천출발

광주지사: 062-226-2601 (구 도청 앞)

광주남구점: 062-654-0033

순천점: 061-755-7114

익산점: 063-843-3800

군산점: 063-245-0006

간해대리점 모집

광주지점: 062-226-2601